‘평화통일 발원’ 13m 괘불 조성됐다

남양주 보광사 ‘월인천강 영산회상변상도’ 점안

오는 4월 28일 점안법회 봉행
고려불화 기법 첫 영산회상도
탱크, 전투기 제압하는 사천왕
圖上에 광주항쟁 · 촛불혁명 그려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발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남양주 천마산 보광사가 조성한 괘불탱 ‘월인천강 영산회상변상도.’ 총 13m로 고려불화기법으로 그려졌다. 그림 아래에는 광주 민주항쟁, 세월호, 촛불혁명 등 당대 사회상이 반영된 도상들이 들어갔다.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13m 대형불화 괘불탱이 새로 조성됐다.

남양주 천마산 보광사(주지 가산)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월인천강 영산회상변상도’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제작 기간만 1년 7개월이 걸린 보광사의 영산회상도 괘불탱은 상하좌우 여백을 제외하고 변상도 그림의 크기만 길이 12m, 폭 6m다. 그림의 여백까지 포함하면 총 13m로 현재 괘불탱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괘불탱은 고려불화 기법으로 그려졌다. 불화를 그리기 위해 주지 가산 스님은 화은 양승태 금어장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달비춤 금어단’을 구성했다. 단원들은 양승태 금어장을 제외하고 모두 봉선사 불화반에서 수학한 아마추어들로 양승태 금어장이 밑그림을 그리면 단원들이 채색을 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대부분이 주부들이어서 평일 낮 시간대에만 작업이 가능했지만, 부처님을 조성하겠다는 간절한 발원은 어느 불모(佛母)에 못지 않았다. 이처럼 보광사 영산회상도 괘불탱은 오로지 순수한 신심으로 일궈낸 대작불사였다.

많은 무게를 견뎌야 하는 괘불탱의 특성상 재질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종이도 10년 이상 숙성된 한지를 7번 배접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가산 스님은 “숙성된 한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안료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한 번 배접에 120장이 든다. 그림에 들어간 한지만 840장, 둘레까지 합하면 950장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채색은 석채 안료를 아교와 어교에 개어서 이뤄졌다. 아무리 곱게 만들어도 삼베에는 잘 베어들지 않아 금어단 단원들은 석채를 8번에 걸쳐 올려서 색을 완성했다. 금 · 은 문양은 금 · 은가루를 3번 칠한 뒤 위에 금박을 입힌 것이다.

보광사 괘불탱 ‘월인천강 영산회상 변상도’의 도상은 매우 독특하다. 당대 사회상과 문화들이 잘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도상의 사천왕들은 부처님과 10대 제자, 보살들을 외호하면서도 인류를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들을 제압하고 있다. 사천왕의 손아귀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가 무용지물이 되며 발바닥 아래서는 155mm자주포가 힘을 잃고 있다.

그림 아래 발원을 올리는 스님을 중심으로 미국 9 · 11테러, 환경오염, 인류의 모든 인종, 광주민중항쟁, 촛불혁명, 세월호 참사, 인종간의 화합상, AI, 핵실험, 교회와 모스크가 나열됐다. 그림 둘레에는 범어로 관음보살 본원진언, 문수보살 본원진언, 보현보살 본원진언 등을 써 넣었다.

이에 대해 가산 스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화는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다”면서 “보광사의 괘불탱 역시 사회상을 적극 수용해 위기에 처한 현재 인류의 모습과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괘불탱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모든 폭력의 배격, 평화의 옹호,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화합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쉽고 선명한 메시지를 환희심을 일으키는 장엄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괘불탱을 보면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절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장엄의 진정한 공덕”이라고 강조했다.



평화 위한 국방 힘써주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비롯해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 4개 군종교구(軍宗敎區)는 4월 18일 사상 최초로 4대 군종교구 합동 전방부대 위문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은 서해 최전방 부대인 백령도의 해병6여단과 연평도의 연평부대에서 진행됐으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 측은 이번 4대 군종교구 위문 방문을 계기로 합동 위문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공무원 불자들 “이젠 불교명상 수행”

공불련 4월 28~29일 월정사서 제26차 성지순례

매회차 간화선과 염불 등 불교수행을 테마로 성지순례를 진행해 온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가 제26차 월정사 성지순례를 불교명상을 주제로 진행한다.

공불련은 4월 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제26차 성지순례 및 제19차 합동수계법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순례에서는 28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가 진행되며, 법회의식 집전 강습 등이 이뤄진다. 눈길을 끄는 점은 28일 오후 9시부터 불교명상을 주제로 수행정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29일 오전 4시 30분에는 새벽예불 후 금강경 독송 및 108참회로 마무리 되며 아침 공양 후 걷기명상이 다시 진행된다.

공불련은 지난해 최초로 대구 동화사에서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입재 한 후 간화선 철야정진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법사로 입재 한 후 염불 철야정진을 진행한 바 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나랏일을 즐겁게 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꾸준한 정진을 통해 공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무원 불자들이 하나씩 수행법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註解

① 자주 머리를 ~ 엉키고:

역자는 자주 將棋를 둔다. 좀처럼 실수하는 법이 없는데 어쩌다 실수를 하여 그 원인을 따져보면 아침에 머리를 감았었다. 몇 차례 그런 후부터는 장기시합이 있기 이틀 전부터는 목욕, 머리감기를 삼간다. 옛사람의 말씀에 시험보기 전에는 목욕, 머리감기, 손발톱 깎기를 삼가라고 하였는데 맞는 말씀이다.

② 배불리 먹고 머리를 감거나 : 결과는 註解 14)와 같다.

③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등 : 頭寒足熱이란 말이 있다. 머리는 차고 발이 따뜻하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水昇火降이 되기 위한 방법이며 결과이니 그 의미는 깊고 크다.

역자는 28세 때, 일 년간 불면증으로 고생이 심하여 양한방의 모든 방법이 무효였다.

어느 날 밤 左右 申脈穴과 照海穴에 施針하니 금세 양 발목이하 발바닥 따뜻해지며 잠이 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였다. 즉 신경과로로 인하여 氣血이 頭部까지 올라 응체되어 하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이에 착안하여 足湯을 하니 효과 역시 針과 동일하였다.

《黃石公素書》에 이르기를, 발이 차가우면 마음이 상하고 백성이 원한을 품으면 나라가 상한다.(足寒傷心 人怨傷國). 발이 따뜻해야 心病과 頭病이 없는 이치거늘, 찬물로 발을 씻거나 찬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는 足寒하여 頭熱케 하므로 頭病이 생김은 당연하다.

④ 두풍(頭風): 頭痛, 神昏, 眩暈, 發熱, 不眠 등을 수반한 頭病.

⑤ 머리를 감고 ~ 쐬면 안 되고: 머리를 감은 후 바람을 쐬면 머리카락, 頭皮에 있던 濕氣가 바람의 風毒과 융합하여 열려 있던 毛孔에 바람의 힘으로 침투하여 腦에 氣血을 응체시킨다. 머리감은 후 선풍기,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행위는 病을 自招한다.

⑥ 여인은 월경 중에 ~고치지 못한다.: 여자들에게 월경 중에 머리감지 말라고 충고하였더니 대부분의 여자들이 머리를 감고 당일로 생리가 불순해진 예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⑦ 목욕할 때 물속에 ~이룬다. : 목욕, 식사, 대소변을 봄, 성교, 이러한 때는 氣가 급격하게 이동하므로 氣滯하기 쉽다. 이 때 氣滯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최상의 방법은 서있는 것이다. 누워서 목욕하면 자세불량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氣滯하니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목욕은 필수적으로 서서해야 한다.

○신비(腎痺): 腎氣가 제대로 行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小腹과 성기에 氣가 쌓여 위로 견고하면 큰 것을 腎痺라고 한다. -《素問 · 五臟生成篇》

⑧ 벽질(癖疾): 주로 兩肋間에 積聚가 있는 병증. 원인은 起居無度, 飮食無節, 强力作勞하여 精血이 훼손되어 邪冷之氣가 울결되어 은벽한 곳에 잠복되어 있는 증상.

⑨ 증왜창(甑[illegible]瘡): 둥그러면서 매우 큰 형태의 피부질환으로 헐고 진물이 흐르는 증상.

⑩ 자주 목욕하는 ~훼손된 것이다. : 목욕은 몸을 청결케 하여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모르는 자는 없다. 그러나 목욕을 氣를 소모시켜 피곤케 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게 한다. 古養生書에 보면, 목욕을 자주하면 肥白해지니 최소 3일 이상에 한번 씩 하라고 하였다.

⑪ 땀이 났을 때 ~ 골비(骨痺)를 이룬다. :

1978년 8월 밤, 역자가 자기 전에 샤워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트니 더운물이 나왔다. 이때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三元延壽書》에 있는 땀이 났을 때 찬물로 목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비록 이해는 하지 못하였으나 本書의 내용 중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시험해 보고 싶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일어난 아침, 어렸을 적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같은 온몸의 포근함과 상쾌함에 놀랬다. 이후 現今까지 三伏더위에도 온수샤워를 어기지 않는다.

○골비(骨痺): 뼈가 쑤시고 아프며 관절에 경련이 오는 증상. 《素問 · 痺論》에 이르기를, 겨울철에 風, 寒, 濕의 三氣가 인체에 들어오면 骨痺가 된다. 《靈樞 · 刺節眞邪篇》에 이르기를, 虛邪가 몸 안에서 뭉쳐 공격하면 骨痺가 된다.

⑫ 옛적에 한 명의(名醫)가 ~ 가지 않았다. : 땀이 나서 [illegible]理가 열렸을 때 寒濕한 水氣가 침투하면 骨痺를 이룬다. 그러나 寒濕한 水氣가 肌膚에 있을 때 마늘을 먹음으로써 辛溫한 藥性의 發熱發散作用을 이용하여 땀을 내어 肌膚의 寒濕氣를 배출하면 骨痺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생강차를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 땀을 내도되며 술을 먹어도 된다.

역자는 가정과 직장에 에어컨, 선풍기, 부채조차 없앤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름철에 공공장소에 오래 있다 보면 에어컨과다로 인하여 냉방병증상이 多少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 뜨거운 햇빛을 받아 땀을 내면 증상은 즉시 소멸되어 원상태를 회복한다.

○촉지(蜀地): 지금의 泗川省일대의 成都, 龍安, 潼川州, 雅州, 保寧이다.

⑬ 불볕더위로 ~ 목욕이야? : 건강 원리는 水昇火降이다. 水昇火降이 되면 손, 발, 아랫배는 따뜻하고 가슴과 머리는 서늘하다. 이와 반대로 손, 발, 아랫배를 차게 하면 水昇火降이 失調되어 百病이 생긴다. 인체의 氣를 찍는 의료용진단기로 자기공명장치(M.R.A)가 있고 킬리안 카메라가 있다. 건강한 사람의 손, 운동직후의 손을 찍으면 강한 오라가 분출되는 것이 찍히는데 찬물에 씻고 찍으면 오라도 많이 사라지고 氣의 양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온다. 찬물은 氣血을 응체시키니 몸에 해롭다. 그러므로 운동직후에는 손을 씻지 말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손발은 체온보다 따뜻한 물에 씻어야만 한다.

○70년대 후반 전남의 某건전지그룹2세인 20대 회장이 여름 음주 후 강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며 목욕하던 사람이 즉사한 예는 지금도 TV와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인이 알고 있는 잘못된 목욕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극히 유해한 방법이다.

⑭ 눈에 병이 있을 때 ~ 멀게 된다.

역자는 본시 시력이 좋았으나 3년 전부터 악화되어 안구건조증상이 생겨 고생하였다. 그러나 1년 전부터 본서를 번역하던 중, 본 구절을 읽고 나서부터 매일 하던 머리감기를 3~4일에 한 번하니 나날이 호전되어 지금은 거의 완치되었다. 참으로 신기하다 아니할 수 없다.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⑦

경원 스님 대전 카톨릭대학 성모병원 영적돌봄가

손 잡아주고 부처님께 기도…“매 순간 배운다”



2016년 상반기, 경원 스님은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했다. 강원시절 화엄반에 있을 때, 학장 스님이 울산에 있는 정토마을 호스피스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것이 계기였다. 하지만 기회는 마땅치 않았다. 시간이 흘러 2015년,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듣게 되고, 그 해 여름 울산의 정토마을에서 ‘생사의 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렇게 스님은 영적돌봄가로 거듭났다.

“영적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영적돌봄을 시작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기에 생사의 고통 속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손을 잡아드릴 뿐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제 자신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손을 잡아드리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영적돌봄을 하며 봉착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경원 스님은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죽음의 무게에 대해 새로 알게 됐다고 한다. 2017년 여름,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던 한 처사님이 그 계기였다. 처사님은 생을 다했고, 스님은 기도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장례식장 작은 빈소에는 가족들이 조촐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스님은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죽음의 무게가 새삼 다가왔다. 불가서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 하지만, 남겨진 누군가에겐 너무도 아픈 슬픔이며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처음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정토마을 능인 스님이 큰 힘이 되어 주셨다. 능인 스님은 경원 스님의 두려움을 알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며, 그 누구보다 순수한 분들이라고 말해주셨다고 한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능인 스님의 설명을 들은 뒤로는 경원 스님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원 스님은 앞으로의 목표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영적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봉사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도 영적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원 스님의 목표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